

연구보고서 제2018-6호

충북도민의 사회복지 인식에 대한 조사

01 서론

1. 주제 : 충북도민의 사회복지 인식에 대한 조사

지역 균형 발전 및 지자체별 복지 수준 인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인식에 대한 사회조사 실행 필요

2. 근거

근거법령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6조(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)

②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(지역사회보장지표)의 설정 및 목표

3. 설문개요

- 연구주제 : **충북도민의 사회복지 인식에 대한 조사**
- 연구목적 :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자체별 복지 수준 인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중, 각 지자체별로 현재 사회복지인식에 대한 사회조사 실행 필요
- 관련법령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6조(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)
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(지역사회보장지표)의 설정 및 목표
- 설문기간 : 2018. 7. 19.(목) ~ 7. 26.(목) 총 7일
- 설문대상 : 충북도내 거주 도민 명
- 설문방법 : 온라인(E-mail, SNS, 문자) 및 오프라인(설문지) 병행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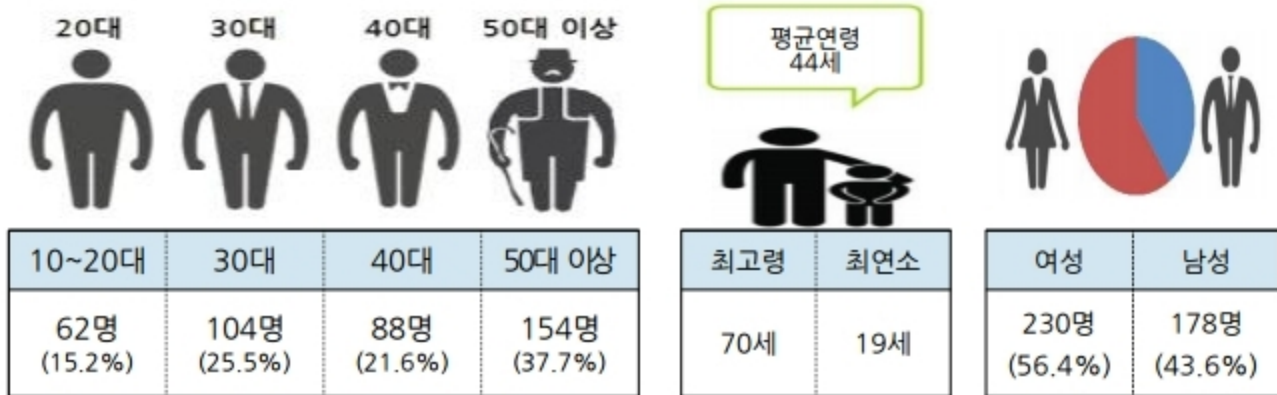
02 연구결과

1. 설문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(408명)

1) 지역

중부권					남부권			북부권		
청주시	증평군	진천군	괴산군	음성군	보은군	옥천군	영동군	충주시	제천시	단양군
199명 (48.8%)	20명 (4.9%)	12명 (2.9%)	12명 (2.9%)	11명 (2.7%)	15명 (3.7%)	47명 (11.5%)	25명 (6.1%)	31명 (7.6%)	23명 (5.6%)	13명 (3.2%)
254명(62.3%)					87명(21.3%)			67명(16.4%)		

2) 연령 및 성별



구분	10~20대	30대	40대	50대	60대	70대	성별 합계
여성	33명 (8.1%)	60명 (14.7%)	22명 (5.4%)	71명 (17.4%)	29명 (7.1%)	15명 (3.7%)	230명 (56.4%)
남성	29명 (7.1%)	44명 (10.8%)	66명 (16.2%)	11명 (2.7%)	16명 (3.9%)	12명 (2.9%)	178명 (43.6%)
연령 합계	62명 (15.2%)	104명 (25.5%)	88명 (21.6%)	82명 (20.1%)	45명 (11%)	27명 (6.6%)	408명 (100%)

2. 연구결과 요약정리



본 결과는 충북도민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충북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,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연구 배경 및 연구 개요

연구 배경

-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자체별 복지 수준 인식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인식에 대한 사회조사 실행 필요

연구 개요

- 연구대상 : 충북도민 408명
- 표본추출 : 임의표본추출
-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$\pm 5.66\%$

충북도민의 사회복지 인식에 대한 조사

**1년전과 비교하여
변화된 정도
변함없다 178명(43.6%)**

- 충북의 사회복지가 1년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질문
- **변함없다(43.6%)**, 약간좋아졌다 (41.9%)

**충북지역사회보장
계획에 대한 인식 유무
없다 218명 (53.4%)**

- 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
- 있다 (46.6%), **없다 (53.4%)**

**가장 잘하고 있는
사회복지분야 노인
복지 174명(42.6%)**

- 충북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
- **노인복지(42.6%)**, 장애인 복지 (16.9%)

**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
장애인복지 90명(21.9%)**

- 충북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
- **장애인복지(21.9%)**, 청소년복지(15.3%)

**지역사회보장계획
수립 시 1순위
아동돌봄 94명(23%)**

- 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시급한 분야
- **아동돌봄(23%)**, 보호안전(15.9%), 고용(15.2%)

3. 세부 연구결과

1)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

단위 : 명,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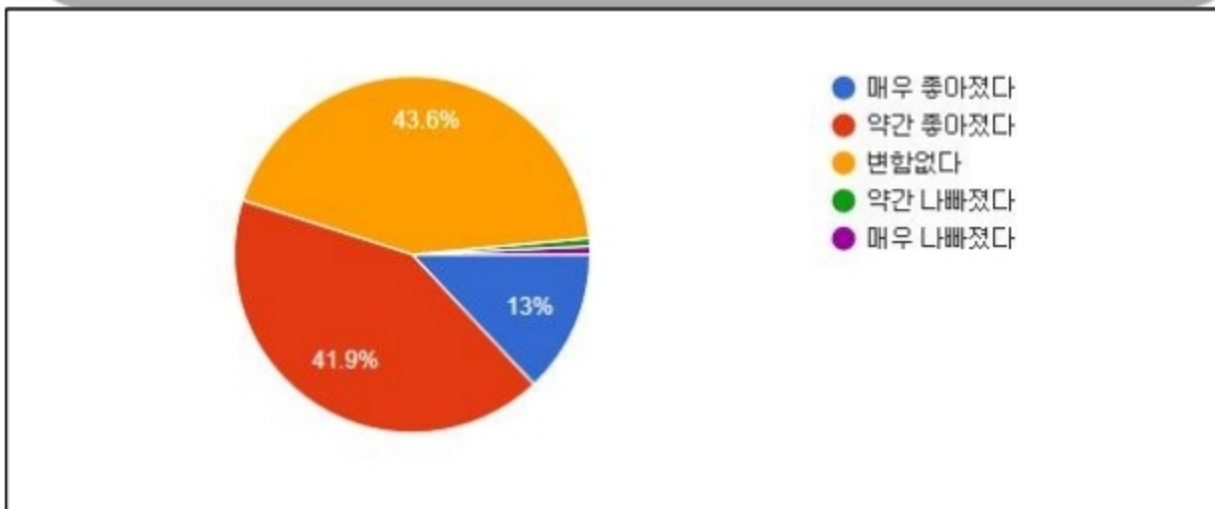
질문 1. 충북의 사회복지가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?

구 분	매우 좋아졌다	약간 좋아졌다	변함없다	약간 나빠졌다	매우 나빠졌다
결과	53명 (13%)	171명 (41.9%)	178명 (43.6%)	3명 (0.75%)	3명 (0.75%)

충북도민에게 1년전과 비교하여 충북의 사회복지의 변화정도를 묻는 질문의 답변 결과, '매우 좋아졌다' 53명(13%), '약간 좋아졌다' 171명(41.9%), '변함없다' 178명(43.6%)로 가장 높았으며, '약간나빠졌다' 3명(0.75%), '매우 나빠졌다' 3명(0.75%)으로 나타났다.



1. 충북의 사회복지가 1년전과 비교하여 변화된 정도에 대해 '변함없다'



2) 충북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인식 유무

단위 : 명,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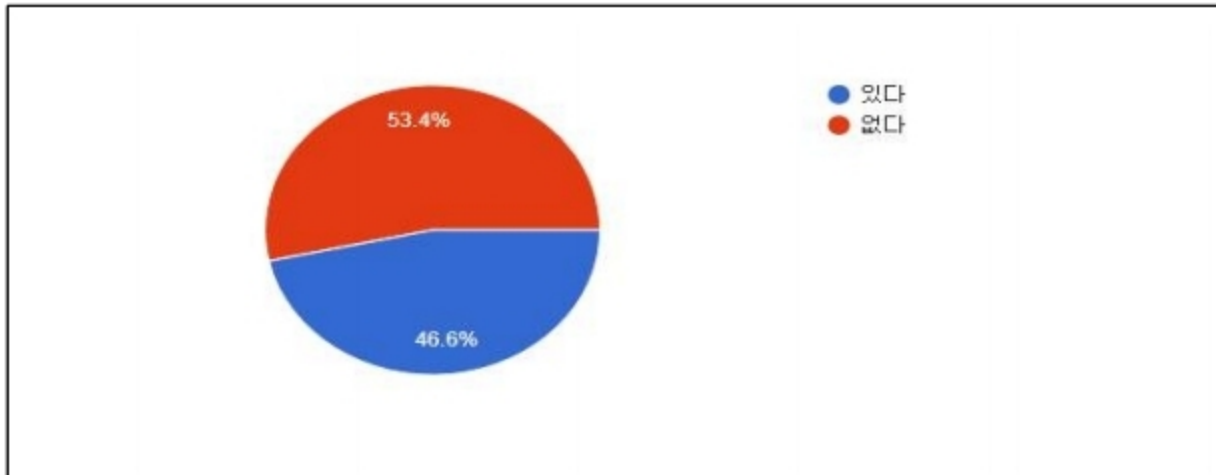
질문 2. 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?

구 분	있다	없다
결과	190명 (46.6%)	218명 (53.4%)

충북도민에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들은 적이 있다 109명(46.6%), 들은 적이 없다 218명(53.4%)으로 나타났다.



2. 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'없다'



3) 충청북도의 잘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

단위 : 명, %,

질문 3. 충청북도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한가지만 선택해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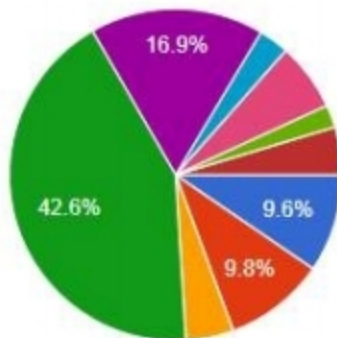
구 분	결 과	
영유아복지	39명	9.6%
아동복지	40명	9.8%
청소년복지	19명	4.7%
노인복지	174명	42.6%
장애인복지	69명	16.9%
여성복지	12명	2.9%
다문화복지	27명	6.6%
새터민(북한이탈주민)	9명	2.2%
기타	19명	4.7%
합계	408명	100%



충청북도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‘노인복지’ 174명 (42.6%), ‘장애인복지’ 69명(16.9%), ‘아동복지’ 40명(9.8%), ‘영유아복지’ 39명(9.6%) 순으로 나타났다.



3. 충청북도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분야는 ‘노인복지’



- 영유아복지
- 아동복지
- 청소년복지
- 노인복지
- 장애인복지
- 여성복지
- 다문화복지
-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
- 기타(자세하:)

4) 충청북도의 잘못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

단위 : 명, %

질문 4. 충청북도가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한가지만 선택 해 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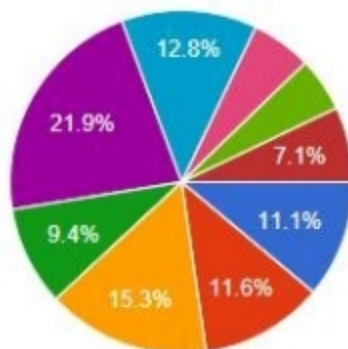
구 분	결 과	
	명	%
영유아복지	45명	11.1%
아동복지	47명	11.6%
청소년복지	62명	15.3%
노인복지	38명	9.4%
장애인복지	90명	21.9%
여성복지	52	12.8%
다문화복지	23	5.7%
새터민(북한이탈주민)	21	5.1%
기타	30	7.1%
합계	408명	100%



충청북도가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'장애인복지' 90명(21.9%), '청소년복지' 62명(15.3%), '여성복지' 52명(12.8%) 순으로 나타났다.



4. 충청북도가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분야는 '장애인복지'



- 영유아복지
- 아동복지
- 청소년복지
- 노인복지
- 장애인복지
- 여성복지
- 다문화복지
-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
- 기타(자세하:)

5) 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 시급한 분야

단위 : 명, %,

질문 5 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한가지만 선택 해 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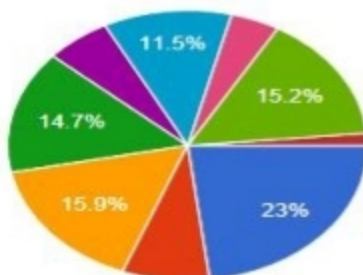
구 분	결 과	
아동돌봄	94명	23%
성인돌봄	32명	7.8%
보호, 안전	65명	15.9%
문화, 여가	60명	14.7%
건강	24명	5.9%
주거, 환경	47명	11.5%
교육	18명	4.4%
고용	62명	15.2%
기타	6명	1.5%
합계	408명	100%



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급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‘아동돌봄’ 94명 (23%), ‘보호·안전’ 65명(15.9%), ‘고용’ 62명(15.2%) 순으로 나타났다.



5.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‘아동돌봄’



- 아동돌봄
- 성인돌봄
- 보호, 안전
- 문화, 여가
- 건강
- 주거, 환경
- 교육
- 고용
- 기타(자세히:)